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鎬秀愚
主聖鍾
崔李韓
行人人
發編印

發行所

川音大叢書 同窓

御医卷之三

郵便番号 121-040
318 特別志 麻達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電話：702-2266 6, 71-3366

●銀行支票番号：7500875

國會議員 당선동문 祝賀宴 성황



入閣동문 비롯 150명 참석 : 지난 5월 13일 호텔 新羅 다이너스티룸에서 本會 崔主鑄회장의 초청으로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李賢宰 국무총리를 비롯한 行政府의 長官 19명과 國회의원으로 당선된 92명의 동문이 함께 자리한 이날의 모임은 母校의 명예와 발전을 기리는 祝祭의 자리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政局이 결코 군
탁치 한국에 것임이 識者라면 누구
나 시인하고 있겠거니와 순탄하기
는 거지 어느때 보다도 難의 과
란을 遭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도 많다. 그러나 어제 또 예전과 앞
으로의 國政의 발달에 대해서 그동
리동문 모두의 名譽와 경계 관계를 갖
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앞으로
의 政局을 운위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재의 國政의 침여자들의 잘 짚듯이
우리 同門 모두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입장에서 떠나니 충당할 드릴까 한
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政治家
의 이미지 쇄신의 문제이다. 오늘날 우
리 사회에서 정치가 誠實의 不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었지
만,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인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가 국
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예행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
치가가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제
무엇보다도 德量을 갖추어야 한다. 제

母校의 名譽를 위하여

들이로 모교를 위하여 그의 헌
신을 전제로 하여 한다. 국政이 참여
하는 동문이 모교를 위해서 주례
함을 단수하여 자가 출신과의 밸
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만을 풍화지
는 것이다. 사실 선술대학교는 그
들이 모교에서 놀라운 이바지하고
동문회의 충성과 성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모교의 학생으로 이바지한
그들이 이바지하는 동문에게는 이익을 찾고 것
같은 그들이 모교를 전제로 대해서
찾고 있다. 학생이 국政에 참
여하는 동문이로서 주로도 주로로
이 봄날 모교의 주제로
대학교로서 국가의 성장을 도록 하여
국교 같이 그는 수학하고자 하는 그들이
로도 부가된 대학교의 사명을 다하고
자연 국가의 고약 같은 지혜를 펼쳐
로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니
에 대한 관심이 국政과 연관되는 것
이다.

아무리 자주가 있고 솔직가 없느
뿐이니 황제라도 德이 純이면 順이신 사
명에 選을 수 있다. 이런 選에서 우 리
리 帝國에서는 士大夫가 있다. 우리
이 被任하는 그들이 品性이 저도 뛰어나다
는 級의 人을 用할 때에는 選을 못
했다. 이들이 選한 것은 人이니 사설을 앞
으로의 國政을 運営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다는 理由로
여러가지 할 것이다. 政治家들이 人事을
정하는 자리를 보일 때 우리의 政治
風氣는 한때 爭奪를 전이로 앓았고
단위의 爭奪할 수 있는 것은 학
문을 하느니 마음에 것이다. 여기서 학
문이라 하도 어디까지나 心性的 면
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球目인 누
구나 자신의 전문분야의 세로운 지식
를 갖추어야 한다. 球목가도 예술이나
그다. 그러나 藩主한 球목가에게는
이르면 전문지식이야 지도자로서
의 인재적 수양이 아울러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지식에 뛰어
된다면 그는 이미 죽은 정치가이
다. 이런 점에서 물과 동양의 고
전 특히 노동과 맹자를 다시 읽
어보는 경우가 있다. 할 것 같
다. 韓書 이시자에서는 國王を 經
藉으로 國政연구를 했다. 언론의 선
율에도 遵守하는 학제적 연구장을 해

大同憲會(회장 南基
棟)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광대교수 회의실에서
1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
도定期總會를 개최했다.
南基棟 회장의 축사, 金
人사, 金
商周학장의 축사, 부의안
건설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먼저 87
년도의 사업설명 결산
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동창회 소식지 발

간 산업시찰 및 △ 통산대회개최 회원명부 발행을 주요 관광행사로 산을 사업으로 하는 6천3백 만원 규모의 88년도에 확정했다. 한편 命會則 개정에서는 현 행 副會長 약간인 10명 내외, 常任理事 약간인 20명内外, 理事 약간인 1백 60명내외에서 人員數조 할을 산제한으로써 임원부를 선출에 유통성을 부여했다.

이로도 南基樸 회장의 鐘淵회원 (50년 후 주식회사 인터크 장)을 이의 없이 선출했다.
이날 총회석상에서는 또 한 지난해 8월과 같은 2월에 도쿄를 정년퇴임한 金岱容 (金岱容)과 李鍾珏 (李鍾珏) (전자공학과). 李得文 (文得文) (미술학과) 교수와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교수를 종전하고 재직 노고를 치하였다.
한편 총회가 끝난 후 30분부터는 동산대회가 있었는데 동산은 堡岳을 넘고 麥大교를

부속
했다. 특히 둑산대회에서
는 동문가족 1백 50여명
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
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날의 둑산대회
에는 자학과 동창회를
구성하는 학우들을
만나고 가정으로써 더욱
행사가 되었다.

◇同門들의 만남의 계절인 5, 6월을 맞 각 單大동창회의 총회가 잇따라 열리 있다. 사진은 工大동창회 (上) 와 齒大동

任賢障을 봄
개판 · 事業計畫 110 승인

單大總會 잇따라 열려



理事 새로 連任

100차
常任理事會

會館 인접建物 경계침범部分
今明間 철거、竣工허가에

單期五 會員資格賦與 否 檢討 亞

본회는 지난 26일 상호 8시 호텔리비에에서 제 10회 정기총회를 열고尹正熙常任理事會를 열었다. (家政大) 2천 4백 명이 이날 선출된理事는 각각 이달 및 大學院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대로 자리를 이의원에 옮기한 것이다.

(서초고교교장) 趙鍾衡
(시현회부국장) 趙鍾衡
(변호사) 李容勳 서율
교원고등교육과장) 林潤
洙(성신여대사회과학대학
장) 동문회·감사에는
炳浩(서울사대부속여중
장) · 李喜子(명지대학교
장) · 李喜子(명지대학교
장)

<p>재단법인 冠岳會 (이사 장 崔主錦)는 지난 26일 理事會를 열고 임기만료 된 白文基 감사 (前美大 총회장·조각가)를 재선 임했다.</p> <p>신임 白감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p>	<p>△ 50년 모교 美大卒</p>	<p>△ 49년 國展 특선 △ 69년 國展 △ 69년 이대교수 △ 69년 美協 조각분과 위원장 △ 59년 國展 심사위원 △ 59년 아카데미 調刻研 원 △ 83년 도교미술 △ 83년 藝術院</p>

34차 시師大附中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되었는데는 지난 28일 하오전에 걸친 활동으로 일기만료된 朴智洙(박지수) 학생이 장의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行政大院

◇ 同門들 의 만남의 계절인 5, 6월을 맞아 각 畢大동창회의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사진은 工大동창회(上)와 齒大동창회(下)의 定總 모습.

특히 이날 행사에는 日刊紙 및 放送기자들 의 취재진들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최근 정치 이슈로 관심이 고조된 3.金鉄주의식, 金鉄 三민주당총재와 金鐘泌 공화당총재의 해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디션션장을 들던 金鐘泌는 먼저 와있던 金斗龍과 마주쳤다. 「총재직에 봉귀한 것을 축하합니다」고 한 후 金민주총재가 수개월동안 「총재」로 난 이었던 점을 「제가 전부터 前字 빨리 데리고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金洙三도로운 자리를 옮겨 앉수를 나누며 「어려운 때 중책을 맡았다」고 격려 했는데 「정치는 저도 해 달라」고 모르니 잘 했다. 20여분간의 각 했다. 방으로 차리를 옮겨 공자리를 끝내고 옆 식평가가 진행되었다. 제1페이지

윤(관의회부회장) 등이
제2테이블엔 모교
任總長. 그리고 그
후부터는 졸業年慶
으로 배치되었다.
하오 7시 20분 吳寅
冰수부처장의 사회로 진
행된 李聖秀 lumber 회장의 동
창회 經過祝賀典 참가
동문소개로 催회장은 시작되었다.
인사를 이날 축하
통해 「17년 만에
실시된 小選舉區 총선
에서 사상 유례없는 치
열한 격전을 승리하
여, 議政 단상에 참여하
게 된 92명이 15만 둘째를 축하
들에게 또다른 축하의 원 축하를 대

國民和合·民主化 旗手다짐



金在淳 早稻田副會長

立法司法行政부 수뇌급 1백여명 참석
金泳三 金鍾泌동문 해후에 매스컴 서도 관심
타협과 화합의 정
서로 꼭두하고 살
나자고 역설
회장은 끝으로 「동
원 여러분께 다시
축하 말씀 드리고
리에 함께 참석하
모든 동문께 감사
며, 우리 서울大學
동문여러분께서는興
本회 副會長
國會議長으로
金在淳
理大·民正) · 朴容萬(文
理大·民主) · 崔洙謹(法
大·勞民)
△ 회장 蔡汝植(文理
大·民正)
△ 간사(총무
澤(法大·民正)
△ 총무 간사
(法大·民正)
(法大·勞民)
의
것이
계가
되었
사건에
5·16집
연루되어
한
국
政
界

立法 司法 行政府 수뇌급 1백여명 참석

『民權宣言』이 담고 있는 「인권·민권·평등·자유」의 원칙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서술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정과 법집행의 실무에서 구현되는 정부의 행정 철학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크다. 특히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는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한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예전에는 국가는 국민을 관리하는 주체였지만, 이제는 국민을 존중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단지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國會議員 당선동문 祝賀會 스케치



◇ 崔主鎮회장·趙完圭 모교총장·李賢宰총리 등
有力동문이 담소하는 모습

의 대학으로 면 무언마나로 자신 풍운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球賽 총장을 예일하게 신작자『 달라』고 부탁했

임원진원	△고문	다음과 같다.
△부회장	鄭石謨	(法文)
大·민주	大·민정	趙世衡
·(문화)	·(평민)	黃培周
·민정	·민족	申喆均
朴榮圭	·(商文)	(法周)

(法大·民主)·鄭永
(義大·公社)·鄭準
(商大·無所속)
한편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여호문서에 들어온 가 먼저 金南潤도 교육대 교수의 밤이 열리도록 「慶
奏와 르노카 프리치 오스
와 테니언 朴恩燮을 대교수의 독창 「라반자」
「국화회」의 열창을 경진
하였다.
獨奏 獨唱이 金南潤
후에는 모교 음대석학 생 4重奏團이 연주하는
는 캐논·파렐리트곡을 배경음악으로 들으며 금
찬을 시작했다.
특히 민족에는 문화
美術音韻 회장과 朴容植
부회장이 자사제품 포
도주 「위하여」와 「마주

郭元模	『중앙대미대교수
權純亨	『서울대미대교수
金東善	『사진연구소대표
金明浩	『성연대미대교수
閔庚甲	『기독교원화실대표
閔哲泓	『서울대미대교수
朴槿子	『제작파생활
朴在鑄	『한양대미대교수
白泰吳	『경희대미대교수
宋榮邦	『동국대미대교수
李南圭	『고려대미대교수
李信子	『덕성여대미대교수
李烈模	『성균관대미대교수
李容煥	『전국대미대교수
李鍾學	『인천대교수
李春基	『전주대미대교수
林範宰	『호의대미대교수
林頌義	『덕성여대미대교수
張潤宇	『성신여대미대교수
全榮華	『동국대미술대학장
崔鍾泰	『서울대미대교수
韓道龍	『홍익대미대교수
黃賢秀	『제3갤러리대표

美術大學

金潤來=서울시장
金潤吉=(?) 선산군회장
金容元=대우전자사장
金容俊=서울가정법원장
金容喆=대법원장
金培泰=국회의원
金潤慶=부산고등법원장
金乙永=(?) 서한대표
金應在=대양도교상사사장
金在錫=국회의원
金正俊=물티나종합상사사장
金鍾貞=럭카개발전무
金宗鏗=국회의원
金周仁=씨즈통상사장
金曾漢=동아대법대대학장
金浦浩=이스턴여행사회회장
金贊鑑=변호사
金昌浩=현대중권감사
金哲洙=서울대법대교수
金致善=충실태총장
金泰卿=前농개공사장
金海山=우영석유대표
金學鎬=대우투자금융사장
金許男=송도상고교장

宋敏鎬 || 前내무부 차관
宋浦植 || 前국회의원
辛奎台 || 서울신티케팅
辛萬教 || 과기처차관
申東元 || 외무부 차관
申五澈 || 변호사
申良淳 || 유정상사 사장
申昌浩 || 우일문화사회장
申铉均 || 국회의원
申鉉ழ || 삼성물산 사장
沈明輝 || 국회의원
安景相 || 강남구원사무총장
安明基 || 변호사
安秉洙 || 변호사
安又萬 || 서울형사지법원장
安二瀬 || 변호사
梁圭德 || 우림기업주 회장
吳德煥 || 변호사
吳聖植 || 인제대학부 학장
吳成基 || 변호사
吳在德 || 한국화약 그룹 회장
吳泰煥 || 한국종합기계조선

李相培^{李相培} = 한양중권상인교
李載仁^{李載仁} = 범호사
李在澈^{李在澈} = 중앙대총장
李在熹^{李在熹} = 동부고속전주 이
李定洛^{李定洛} = 남부지원장
李珍雨^{李珍雨} = 국회의원
李喆爾^{李喆爾} = 동양장철(주)감사
李泰熙^{李泰熙} = 변호사
李宅教^{李宅教} =剪극회의원
李海元^{李海元} = 前보사부장관
李海遠^{李海遠} = 우드워드디커스
李亨根^{李亨根} = 옥수수가공협회회장
李洪九^{李洪九} = 통일원장관
李會昌^{李會昌} = 변호사
李泓熙^{李泓熙} = 동서식품사장
李植圭^{李植圭} = 중앙대법원부장판사
李徵永^{李徵永} = 법화회재사장
李義圭^{李義圭} = 前광우은행전무
任明淳^{任明淳} = 성풀동산감사
林順哲^{林順哲} = 변호사
林寅澤^{林寅澤} = 광진경찰장
林采洪^{林采洪} = 일제총법률사무소
林洪彬^{林洪彬} = 문화사상사회학자
張鉅淳^{張鉅淳} = 쌍용정유전무

▲ 崔泳灝	『국회의원』
▲ 韓鳳洙	『한국 전력사장』
▲ 韓永錫	『청와대 민정수석』
▲ 韓正鋼	『변호사』
▲ 許南蕙	『상고부 차관』
▲ 玄明官	『호텔 신라 전무』
▲ 玄在賢	『동양시멘트』 사장
▲ 韓東羽	『동양증권사장』
▲ 洪性佑	『중소기업 지원공단』 대표
▲ 洪淳暉	『글로벌 환경사업』 사장
▲ 洪承丸	『중앙부자금 유통』 사장
▲ 黃秉印	『총무처 관리』 실장
▲ 黃善鑑	『대법원 판사』
▲ 黃英奎	『태평양 학회』 회장
▲ 玄鴻柱	『법제처 장관』
▲ 皇甫慶石	『동진산업』 사장
▲ 金仁煥	『동양물리』 에스터 대표
▲ 文相穆	『우진로부사장』
▲ 朴正善	『수영그레상부』
▲ 徐載寬	『우지필립 관계사장』
▲ 劉廷鍾	『동양화학부회』 회장
▲ 洪寅基	『동서증권사장』
▲ 尹元錫	『화론호텔』 사장
▲ 尹道鉉	『금강개발』 사업사장
▲ 差箕善	『국회의원』

康宇哲	이대사 대교수
姜允中	서대문중학교 교장
姜圭圭	인하대부중학교 교장
高甲柱	방배중교장
高道任	성신여대학장
高仁諾	서강대학교 교수
高岱植	대림여중교장
孔榮熙	서울대시설국립대학원 교수
郭漢哲	서울고등학교 교장
郭厚燮	롯데기공회사 사장
權相澈	안양공진학장
權淳讚	한국방통학장
權容禹	강릉대학교 교수
權清子	성남성보상고교 교장
權泰遠	충남대학교 교수
權赫冕	한양대학교 교수
金寬洙	서울여고교장
金教俊	도서출판개문화
金基錫	고대문리대학교 교수
金基玉	반포국민학교 교장
金奇煥	관악중교장
金洛升	연세대학교 교수

▲ 金俊文=진에드 대표이사
▲ 金燦三=동산고 이사
▲ 金燦榮=동인천종합교
▲ 金誠宰=교원연금관리
▲ 金昌哲=정민사 대표
▲ 金千洪=인천시 교육
▲ 金泰植=휘문고 교장
▲ 金鶴來=미나노성우공
▲ 金漢哲=연동포여중교
▲ 金靈權=영남대교육대
▲ 金泰星=우신고 교장
▲ 羅東星=우신고 교장
▲ 羅賴煥=아남정밀(주) 사
▲ 南憲祐=교대학장
▲ 虞載敏=신일축산공사
▲ 孟千鏞=꽃지구부부자
▲ 文炳寔=한영예운대표
▲ 文祥得=아주대 인문대학
▲ 文尚錫=전남산업(주)
▲ 文允吉=변호사
▲ 閱經=고대경리과장
▲ 朴魯錫=개포고교장
▲ 朴大圭=세림산사 회장
▲ 朴炳浩=서울대부여중
▲ 朴秉澤=국민은행봉사
▲ 朴勝培=서울교대교수

梁在善·인천도화면
延興淑·인천도화면
麻台燮·교세대육영면
吳桂七·서강교수
吳培根·석천교교장
吳炳文·전남대사대
禹宙燮·국제대교수
柳光烈·성화출판사
俞炳林·서울교대교수
劉華鎮·이화여대교수
柳聖圭·서울한의원
劉翰穆·원종중교장
尹南植·이화여대체대
尹鳳連·홍지유치원
李金泳·전북대자연
李起芳·충원전자
李達浩·서울교대교수
李廉善·용인태성고교
李教熙·서울대사대
李大榮·명지대교수
李孟成·서울대사대
李明權·인천교장
李明徽·국민대사대
李秉植·수원경찰학교
李珊錫·전주교대교수

▲ 廣京沐=악구화재보험전
▲ 姜金植=국회의원
▲ 康南彦=아주회계법인
▲ 美東夷=국민은행법무점검
▲ 差演口=태영제지(주)사장
▲ 差沈憲=대동복지사장
▲ 姜泳哲=삼천리기계사장
▲ 姜龍雲=현대암미늄회사
▲ 姜旭=한국리무역대표
▲ 姜垣求=(주)성유상사대표
▲ 康應柱=동부부역대표
▲ 姜仁浩=오리에트전자사
▲ 姜晉佑=롯데햄우유사
▲ 姜允錫=대성기업(주)사장
▲ 高光直=전로운행장
▲ 高斗模=(주)미월전부
▲ 高炳佑=쌍용부자증권사
▲ 高學模=대주무역상사사
▲ 公正坤=동양나이온점검부
▲ 郭潤光=후지필판레이
▲ 檻桂洪=한국업존(주)사장
▲ 檻寧馨=(주)주산사업장
▲ 檻鍾善=한국야쿠르트상
▲ 檻泰仁=한국종합기술간

同窓會 評議會에

활성화에

길동역할 期待

金榮洙	『연합평고사장』
金柱洙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趙成鉉	『유네스코사무총장』
李善培	『연합출판인총회사장』
任煥得	『변호사』
韓甲洙	『한국산업연구원장』
金志柱	『금성반도제사장』
南時旭	『동아일보』『월간국장』
黃仁政	『한국개발연구원장』
鄭年復	『중국기업사부사장』
金聖佑	『日消息』『日刊스포츠』『사장』
韓禹運	『인하교수』
吳東聲	『상용경제연구소』『장』
李錫興	『경향신문기획위원』
晋洋文	『새한통합상임감사』
宋漢虎	『동일원치관』
鄭一求	『국민대총장』
李東熙	『경기신안현대학장』
張哲浩	『전서광』
金泰男	『조달청장』
柳益衡	『법한서적』『주사장』
鄭洪鉉	『송원장학재단』
梁圭慶	『진양화학』『주사장』
李正夏	『세종문화재단』
李宗慶	『신설당』『사장』
玄永源	『현대상선』『회장』
金內浩	『한성동중학교』『이사장』
李在根	『한국종종업인고문』

金炯琪 || 대법원판사
南載熙 || 국회의원
盧信水 || 前국무총리
羅東錫 || (주)전신상사 사장
繩顯吳 || 前국회의원
睦亮相 || 前국회의원
文仁龜 || 변호사
文洪球 || 에너지공단이사장
閔國寧 || 변호사
閔國寧 || 변호사
文鴻柱 || 정신문화연구원장
朴秉福 || 노남석유화학
閔榮榮 || 협성률산사장
朴相天 || 혁성을산사장
朴演時 || 재민원행정검사부주장
朴永泰 || 한일은행상무이사
朴禹東 || 대법원판사
朴禹東 || 하재단용재단사장
朴一欽 || 변호사
朴載學 || 前현법위사무총장
朴鍾植 || 변호사
朴哲雄 || 청와대정책보좌관
朴惟榮 || 한양대사회대학교수
朴泰緒 || 前전주제지고문
朴鉉兒 || 前언론회판이사장
朴弘植 || 틀어청장
裴基政 || 신성파카드(주)사장
裴渡 || 효성물산(주)사장
裴命仁 || 국가안전기획부장
裴炳煥 || 변호사

元興均『세종대총장
禹明熙』『삼위신업사사장
禹益諱』『경남유동봉사장
劉碩源』『(수)선경부회장
柳基範』『대우정밀(사)사장
柳順茲』『경기대학교교수
柳寅用』『전기협회사무국
柳重年』『(수)웨스콘사장
柳哲鏗』『한성부자금융사
柳興洙』『前國회의원
尹琴重』『(수)부주부
尹世榮』『前태영회장
尹雲榮』『변호사
尹一冰』『대법원판사
尹柱元』『(수)아진산업(주)회장
李康煥』『대한교육보험협사
李圭孝』『前전무부장관
李基萬』『대신동통상사장
李大淳』『국회의원
李大源』『홍익대미대교수
李明熙』『대법원판사
李文浩』『호남정유전무
李丙基』『농림수산부차관
李丙來』『신동제지주사장
李炳守』『두산기계(주)사장
李秉春』『원주문화방송총사장
李相英』『세진전자(주)사장
李相運』『한국화약부사장
李相運』『한국화약부사장

▲ 張炳圭 └ 문교부 차관
▲ 張岱雄 └ 동방 유령 전주
蔣群任 └ 서울 민사 사지 법원 판사
▲ 張世綱 └ 한양 주자 금융 협회
▲ 張秀吉 └ 변호사
全應培 └ 삼양식품 광명 사업
鄭起勝 └ 대법원 판사
鄭東元 └ 전수 협동법인
鄭石漢 └ 국회 의원
鄭沃均 └ 범양화학 회장
鄭恩教 └ 삼영의 스포츠
鄭寅用 └ 前부총리
鄭鍾學 └ 충남 대교수
鄭致根 └ 변호사
丁海昌 └ 범루 부장관
鄭熙彩 └ 서울 시립 대중사
趙南燦 └ 산부로 전신자장
趙東元 └ 한국 경제신문 대표
趙永植 └ 경희 대총장
趙參 └ 변호사
趙正濟 └ 변호사
周敬淳 └ 고무 원연금 회장
朱炳國 └ 한국 원유 행정
車秀明 └ 변호사
千命基 └ 사회 복지 협의회
崔光律 └ 외무 장관
崔光律 └ 변호사

姜信玉	국회의원
康祐赫	국회의원
姜在涉	국회의원
金奉旭	국회의원
金龍煥	국회의원
金泰鏞	국회의원
朴相千	국회의원
朴進球	국회의원
朴哲彥	국회의원
朴燦太	국회의원
白南治	국회의원
朴忠淳	국회의원
申五澈	국회의원
吳有邦	국회의원
尹在基	국회의원
李相河	국회의원
李元渾	국회의원
李廷武	국회의원
李仁濟	국회의원
李漢深	국회의원
李協	국회의원
張石和	국회의원
鄭大哲	국회의원
金東圭	국회의원
趙昇衡	국회의원
李應奎	공화금수(주) 사장

▲ 金年植 = 서울대사대교
▲ 金南暉 = 속령여대교수
▲ 金德順 = 연북중교장
▲ 金德姬 = 경기여고교사
▲ 金東吉 = 인천양행여자상
▲ 金東然 = 반포고교교장
▲ 金東完 = 휘경중학교교장
▲ 金汝植 = 송연여중교교장
▲ 金鳳守 = 서울교대교수
▲ 金鳳姪 = 한양여고교장
▲ 金相玉 = 청주교대교수교장
▲ 金祥源 = 청와대보좌관
▲ 金商俊 = 문교부차관
▲ 金相吳 = 서울대사회
▲ 金與炫 = 한양대인문대학교수
▲ 金善陽 = 인하대사대대학
▲ 金性植 = 북부교육구청장
▲ 金順五 = 북부중학교교장
▲ 金溫中 = 전남교대교수
▲ 金永教 = 대한신학부교장
▲ 金永翠 = 상계여중교장
▲ 金永植 = 문교부장관
▲ 金榮義 = 서초고교장
▲ 金永環 = 명곡중학교교장
▲ 金永泰 = S.T.M.

中 교 장	趙允濟	영동하고교장
교 장	趙義淑	충진대교수
교 장	趙利刃	지로관리수부장
교 장	趙俊默	인천교위파학부
교 장	趙澈元	광녀조합건설전선
교 장	趙泰璵	공구사대교수
교 장	趙勳	전국기원여종교
교 장	趙萬映	언남고교장
교 장	朱世煥	성남이고교장
교 장	朱日永	충양대문리대교
교 장	池潤鑑	신남중교장
교 장	陳起楨	공구간호전문대
교 장	千榮喜	삼성종합면수원
교 장	崔景林	단주대교수
교 장	崔根茂	전주대교수
교 장	崔仙吉	화림총판사장
교 장	崔洛基	전주교육부수장
교 장	崔赫祥	이화산업(수)시장
교 장	河舜鳳	前평고공사사장
교 장	韓國熙	수원고교장
교 장	韓基彥	서울대사대교수
교 장	韓祐澤	무하여고교장
교 장	韓福洙	청량고교감
교 장	韓炳誥	변호사
교 장	咸宗圭	숙명여대교수
교 장	許錫九	동원자재검사소
교 장	洪範基	서울시교위작장

▲ 許均＝체성화회

▲ 李丙昱 || 삼양류지사료
▲ 韓明錫 || 동방관 광우사
▲ 李相起 || (국화인무역사) 대
 金榮珍 || 내무부 차관
▲ 金玉熙 || 보훈처 차장
▲ 崔仁基 || 광주 시장

장
▲ 金容奭 = 서울사대부종
▲ 金麟洙 = MRA 학자
▲ 金二朱 = 서연동교장
▲ 金在恩 = 이화여대교수
▲ 金井九 = 前 대한총관판
金鐘祺 = 성현학원이사

▲**中義澈**==**충청교육연수원**
▲**申澄雨**==**상명여대교수**
▲**申讚雨**==**숙명여대교수**
▲**申興南**==**대원여고교수**
▲**沈相燭**==**부산전신사진관**
▲**沈載完**==**대구한의과대학**

원장 ▲ 李海龍=라자기구
▲ 李恒儀=백제문화학회
▲ 李華水=고구려사대학회
▲ 李喜子=명지대교수
▲ 李姫鏘=주부
▲ 林仁秀=한림출판사
▲ 林鍾國=광주대한미술대학원

▲ **黃錫根** ■ **상신종교장**
▲ **黃洋奎** ■ **동협종교회실장**
▲ **黃應淵** ■ **이회여대사대교
황彩皓** ■ **해동화재영업부**
▲ **黃哲秀** ■ **국회의원**

商科大門

徐幸	○ <u>코오로로상사</u> 전부
徐永錫	○ <u>서울현감</u> 상사 대표
徐泰祖	○ <u>조선</u> 국무부 차관
石學謹	○ <u>국교도</u> 통관설 사장
薛元亮	○ <u>대한전선 회장</u>
薛漢俊	○ <u>시민리화</u> 사장
孫東皓	○ <u>조홍은</u> 행실부
孫建來	○ <u>국민주자금 응원</u> 사장
孫基昌	○ <u>대성제화</u> 사장
孫吉承	○ <u>선경합성</u> 기술자
孫忠男	○ <u>수동제약</u> 사장
宋桂先	○ <u>의화원</u> 모자연장자
宋明鑄	○ <u>도토루</u> 부사장
宋甫植	○ <u>제일화장</u> 일감사
宋三錫	○ <u>남도나마</u> 사장
宋世昌	○ <u>제일모직</u> 사장
宋仁相	○ <u>한미협회</u> 회장
宋基煥	○ <u>도토루</u> 부사장
宋甫植	○ <u>한국불문</u> 공업 사장
宋大均	○ <u>대광상사</u> 사장
宋基台	○ <u>도토루</u> 고문
宋基煥	○ <u>도토루</u> 부사장
申世吉	○ <u>삼정률</u> 산부 회장
申正澈	○ <u>경인산업</u> 기기 대표
申泰煥	○ <u>전서율대</u> 총장
申熙澈	○ <u>금강제화</u> 사장
申熙澈	○ <u>삼정률</u> 산부 회장
沈遠澤	○ <u>대한</u> 자금 융자사
沈晶求	○ <u>국회의원</u>
沈載榮	○ <u>국제상사</u> (주) 사장
安秉國	○ <u>선청사</u> (주) 상무
安順榮	○ <u>대동통상</u> (주) 사장
吳元慶	○ <u>동팔봉상</u> (주) 사장
吳寅賢	○ <u>유한칠리</u> 전무
吳漢九	○ <u>국회의원</u>
元容勵	○ <u>대동통상</u> 부사장
元昌喜	○ <u>서우산업</u> (주) 사장
嚴興燮	○ <u>동남물류</u> (고문)
柳遠榮	○ <u>동남물류</u> (주) 사장
柳基東	○ <u>한국주택</u> 부사장
柳明集	○ <u>대동</u> 농사장
俞英一	○ <u>해상사</u> (주) 사장
尹綠鉉	○ <u>종관련</u> 부원장
尹秀炳	○ <u>신동건설</u> 사장
尹承斗	○ <u>진중구제</u> 소사장
尹永錫	○ <u>대우조선</u> (주) 사장
尹炯秀	○ <u>국제상사</u> 전무
尹佐鉉	○ <u>에지</u> 에드루 사장
李康秀	○ <u>중권간통</u> 원위원
李基齊	○ <u>전동화학</u> 부사장

任期
2

八
年

3月
ノ
ス

▲ **徐廷範** || 제일화학공업사
申榮武 || 사이나미드지사
吳環錄 || 전호그룹주
吳昌洙 || 남서울대공원
俞炳文 || 한국바이오헬스
尹志炳 || 가수전영병연고
李角模 || 동방(주)
李世鎔 || 애쿠르트유업
李道弼 || 영국크리니아업
李相萬 || 대부동교하고장
李淳雨 || 대한주의사회
李承旭 || 북도문화체육원장
李在謙 || 월성동물병원원장
李載哲 || 덴신가족병원원장
李鍾範 || 태림모파(주)사장
李鍾厚 || 동도원양도장
李昌九 || 한국마이엘화학
李徹兩 || 진국회의원
李衡雨 || 이수의과병원장
李基求 || 학교동물약품상장
林永一 || 협동동물병원원장
張天錫 || 중앙동물산생사
全鍾洙 || 동부가족병원원장
鄭鶴華 || 서울가족병원원장
趙吉顯 || 미끌고노산병원원장
千炳得 || 충북중동회감사
韓二祚 || 부산경상전문대
崔善佑 || 대주산업
洪英善 || 홍성산업(주)
車惠相 || 대양동물약품공
李鳳洙 || 밤월동물학개축명원
崔水 || 기독교환경대학
黃鳳馨 || 대한종합의약회사
黃昌基 || 한미은행장
黃影湖 || 삼희회계법인 대표
黃昌學 || 한국공학용역사
沈大平 || 충남도지사

楚堅鑄 // 크라운제
義石鋼 // 동양제
義守哲 // 유미악국
義信鎰 // 경화악품
義才吳 // 신신이국
高義益 // 삼일제약
權景坤 // 현악국
金光淳 // 청계약품
金奎錫 // 새서울약
金基德 // 남시약국
金基豐 // 前대안여
金洛斗 // 모교병원
金文梧 // 남시약국
金相烈 // 전풍제약
金相祚 // 한국그린
金在百 // 원광제약
金永鉉 // 서울약국
金興植 // 신경당약
金聖珍 // 상수약
金聲弼 // 베리약
金濟吉 // 신진제약
金玉東 // 신진제약
金元寶 // 평안약국
金長淑 // 국회의원
金在百 // 원광제약
金熙中 // 혜도약국
文兆鍾 // 국립보건
文雄大 // 용인약국
金清浩 // 진화제약
文昌基 // 만세약국
文昌述 // 상률수약
閔丙熙 // 다나약품
文昌基 // 만세약국
朴慶來 // 채진제약
朴萬基 // 서동대학
朴列 // 한국세령
朴漢煥 // 경북대학
朴鍾勳 // 경북대학
朴漢煥 // 경북대학
徐廷祥 // 전북일보
宋豐五 // 신진약품
申榮浩 // 새우제약
申容和 // 크라운제
沈寬燮 // 청산약국
沈昌永 // 서울대
安金惠 // 반포약국
安利鉉 // 신종영진
尹相澈 // 수정약국
尹相澈 // 동신제약
尹相澈 // 일동제약
尹相澈 // 주부

獸醫科大圖

藥學大辭

音葉大經

醫科大學

■ 理事님들께 드리는 案内 말씀

同窓會사무처에서는 새로選任되신理事님들께 賀書信과 함께 選任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住所 또는 職場이 바뀌어返信되어오는 우편물이 있으나니 住所나 職場변동이 있으신 同門께서는 사무처(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發刊되는 任員수첩은 오는 7월 말경에나 發刊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張道澤||중부부속의 도원장
張友鉉||서울의 대교수
張益說||강남성신병원장
全東源||전소아파의 원장
全東暉||부산연제의 대교수
鄭吉根||소천의 원장
鄭世恩||양천회병원장
鄭雨英||정부영과의 원장
鄭鎮宇||금강병원장
鄭澤澤||전의 과의 원장
趙斗英||서울의 대교수
趙聖桓||조암과원장

◆ **金東羽** || 시민치파의 원장
◆ **金鳳浩** || 김동호지파의 원장
◆ **金鳳煥** || 김동환지파의 원장
◆ **金祥世** || 김상세치파의 원장
◆ **金成龍** || 김성룡치파의 원장
◆ **金成河** || 김경과의 원장
◆ **金汪國** || 김왕국치파의 원장
◆ **金容達** || 김용달치파의 원장
◆ **金龍雲** || 김용운치파의 원장
◆ **金義龍** || 황예룡치파의 원장
◆ **金仁壽** || 동산치파의 원장
◆ **金一昌** || 김일창치파의 원장
◆ **金正均** || 김정균치파의 원장

任徵中 || 임월종치과의원
林采均 || 임채구치과의원
張相憲 || 장상현치과의원
張榮圭 || 장영규치과의원
全萬植 || 전한식치과의원
鄭寛晉 || 정관희치과의원
鄭昭永 || 정소영치과의원
鄭潤杓 || 정진과의원
冉子鉉 || 조사현치과의원
朱寬哲 || 의당치과의원
朱洛林 || 한일치과의원
池憲澤 || 지현태치과의원

尹元植 || 조원신용금고
 尹植燉 || (국)한보회장
 李鍾烈 || 한일탱크터미널
 李俊鶴 || 태아신약주식회사장
 李徵水 || 법화화재보험사 대표
 張基泰 ||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張泰植 || 국민은대재단 회장
 全道鎭 || 대양제지공업사 대표
 全永吉 || 한국컴퓨터기기
 全禹榮 || 전문법원행정처장
 鄭東俊 || 모토로라코리아
 鄭殷植 || 모토로라코리아
 姜京鐸 || 동서식품전무

看護學科

金學賢	＝坡明朋원
金炯鉉	＝국령의 보원 안파
金弘基	＝이천종안길朋원 장
文太俊	＝전대한의 학회 회장
文翰	＝부산의 대교수
文翰	＝서울의 대교수
李孝重	＝重문 훈종비 노기 파
閔秉根	＝중왕의 대교수
閔丙哲	＝고대구로 병원장
閔永玉	＝고려 병원장
閔獻基	＝서울의 대교수
朴機夏	＝박기하미 노기 파
朴文甲	＝방문갑의 원장
朴善奎	＝의학보사 장
朴炳善	＝국회의원
朴聖泰	＝새서울의 원장
朴秀誠	＝강남성신 병원
朴鍾實	＝박산부인파의 원장
朴永夏	＝세종병원장
朴永夏	＝세종병원장
朴熙武	＝박시우부인파의 원
朴贊雄	＝서울대의 대교수
朴熙伯	＝박희복과의 원장
方俊熙	＝설리비뇨기 과원장
白萬基	＝강서 병원
白相豪	＝서울대의 대교수
宋斗灝	＝국회의원
白承龍	＝고려의 대교수
徐景弼	＝서울대의 대교수
徐光倫	＝백병원장 협의과
徐內島	＝인하의 대학장
徐凌圭	＝서준기의 원장
成基浩	＝한일병원과 과교수
富明勳	＝도렴마산 병원장
孫光鉉	＝백병원동부의과 원장
宋家鉉	＝동인의 원장
宋榮冕	＝송의과의원
宋益蕙	＝유양 병원방사선과
申東烈	＝신동령암과
申萬鍊	＝고려 대명예교수

申冕雨 ■ 서동대의 대교수
中洪秀 ■ 고려대 화병원
沈英輔 ■ 심영보의 원장
安炳善 ■ 동인방사선과의 원
嚴澤富 ■ 암산부인과의 원
廉濟龜 ■ 영암과원장
吳慶根 ■ 오산부인과의 원장
吳俊湖 ■ 오산부인과의 원장
元致奎 ■ 한양대의 대교수
劉英誠 ■ 유영진의 파원장
金景兼 ■ 유성의 원원장
柳聖熙 ■ 동서울 병원장
柳榮龜 ■ 유영구 선경과의 원
尹德善 ■ 한강성심병원
尹秉鶴 ■ 흥국생명보험 회장부
尹正哲 ■ 운천화이 보험 회장부
尹敬求 ■ 자마병원장
李敬國 ■ 성일산부인과 원장
李洗鎬 ■ 서울대 대학장
李奎恒 ■ 안양신경정신병원
李吉女 ■ 인천길병원 의사장
李吉振 ■ 성신의 원장
李復熙 ■ 충남대의 대교수
李東沂 ■ 이동기 소아과의 원
李相敦 ■ 중앙의 대교수
李善哲 ■ 한강성심병원
李純鎬 ■ 인제의 대교수
李純炯 ■ 서울대의 대교수
李承徵 ■ 경기 후생 복지원장
李永哲 ■ 이영철과의 원장
李永好 ■ 이영호 이비인후과
李惟好 ■ 서울대의 대교수
李仁洙 ■ 순천향의 대교수
李定均 ■ 서울의 대교수
李鍾贊 ■ 이종찬과의 원장
李哲濟 ■ 이철재안과의 원장

趙禮相	● 중앙의 대교수
趙矣九	● 의현상군부회장
朱圭完	● 삼성정관의 무신
朱槿源	● 한자국가보살임고문
崔範錫	● 서울의 대교수
崔吉洙	● 서울의 대교수
崔德水	● 중앙의 대교수
崔有義	● 종암의 원장
崔振學	● 경상의 대병원장
崔夏鑑	● 인제의 대병원장
崔虎容	● 죄산부인과의 원장
韓甲洙	● 경희의 대교수
韓斗鑑	● 한국 병원장
韓格富	● 동부사립요양원장
韓萬青	● 서울의 대부원장
韓萬熙	● 대명의 원장
韓明烈	● 한일의 원장
韓鏞徵	● 서울대학교 병원장
韓正鎬	● 한원회내과의 원장
韓正祐	● 연산의 원장
韓泰鎬	● 한태호 산부인과
韓周周	● 한철주의 원장
咸毅根	● 서울의 대교수
咸泰英	● 인재의 대교수
許億	● 고려신경과의 원장
玄光喆	● 현의 원장
洪彩義	● 서울의 대교수
洪鍾寬	● 수천향의 대교수
洪淳厚	● 흥순원외과 원장
韓景子	● 서울대의 대교수
姜九漢	● 강구한치과의 원장
姜孝植	● 병원치과의원장
高英澤	● 박동치과의 원장
李榮子	● 도교병원간호부장
高鎮圭	● 고진수 치과의 원장
高錦卿	● 구연복 치과의원장

金宗瑞	김종서치과의원장
金宗哲	김종철치과의원장
金讀淑	김찬숙치과의원장
金首玉	김철우치과의원장
金鶴大	김자과의원장
金學聖	김학성치과의원장
金海順	김해순치과의원장
金顯豐	김현봉치과의원장
金基浩	김기호치과의원장
金明哲	김명재치과의원장
金南旭	김남우치과의원장
金東錫	김동석치과의원장
金南勇	김남용치과의원장
金旭熙	김혁희치과의원장
朴時雨	박시우치과의원장
朴找仲	박찾진치과의원장
朴彰錫	박창석치과의원장
朴榮男	박영남치과의원장
朴鍾秀	박종국치과의원장
朴成寧	박성녕치과의원장
朴煥基	박환기치과의원장
朴正煥	박정혁치과의원장
朴善雄	박선웅치과의원장
朴秀雄	박수웅치과의원장
宋相出	송상우치과의원장
宋鉉重	송재중치과의원장
宋英範	송영판치과의원장
宋英鈞	송영준치과의원장
辛在義	신재의치과의원장
沈平澤	심평택치과의원장
安相奎	안상규치과의원장
吳泰植	吳泰植치과의원장
梁精康	양정강치과의원장
禹亨植	유한치과의원장
柳在植	유자치과의원장
劉英世	유영세치과의원장
尹興烈	윤흥烈치과의원장
李今龍	이민룡치과의원장
李起澤	이시각치과의원장
李炳允	이병언치과의원장
李丙台	이병태치과의원장
李培基	이봉기치과의원장
李成馥	이성복치과의원장
李秀鎮	이수진치과의원장

崔基陳 || 최치파의 원장
崔培壽 || 최선수 치파의 원장
崔旭煥 || 최우환 치파의 원장
許研旭 || 강성초 치파의 원장
許泰慶 || 평화 치파의 원장
玄天燮 || 현지파의 원장

大學院

教育大學院

新聞大學院

同去大學堂

保健大學院

行政大學院

朴定勳	朴龍治	서울시립대학교
朴準翼	朴準翼	천주교서울대교구
朴準翼	朴準翼	천주교서울대교구
孫守益	孫守益	전환경경정장
孫守益	孫守益	전교동부장관
申基誠	申基誠	세종부사장
申基誠	申基誠	세종부사장
申瑞雨	申瑞雨	체우회부회장
申瑞雨	申瑞雨	체우회부회장
申鉉守	申鉉守	감사원감시위원
申鉉守	申鉉守	감사원감시위원
安甲浦	安甲浦	국회의원
安甲浦	安甲浦	국회의원
安光一	安光一	팔운대교수
安光一	安光一	팔운대교수
呂尚基	呂尚基	미아전신전화국장
柳京得	柳京得	명지대부역과교수
尹常松	尹常松	해사문제연이사장
李圭貳	李圭貳	전새마을금고회장
李同春	李同春	우성건설부사장
李永雨	李永雨	재무부경제협력과
李英浩	李英浩	명지실전교수
鄭景謨	鄭景謨	해외선교부회장
張承台	張承台	우진석유(회)회장
田明鎬	田明鎬	양천구청장
全珠植	全珠植	지하철공사감사
李峻榮	李峻榮	감사원사무처장
張承台	張承台	우진석유(회)회장
田明鎬	田明鎬	양천구청장
全珠植	全珠植	지하철공사감사
鄭景謨	鄭景謨	해외선교부회장
高建	高建	전동
權源庸	權源庸	건설부
金秉麟	金秉麟	(수산)
金思齋	金思齋	경기
金利煥	金利煥	대한
金學載	金學載	서울
都明正	都明正	울리
朴君立	朴君立	국민
禹命奎	禹命奎	국방
柳命夏	柳命夏	찰관
尹伯榮	尹伯榮	시기
李相鴻	李相鴻	산환경
李仁遠	李仁遠	(홍의)
李鍾喆	李鍾喆	한강
李俊雨	李俊雨	(은평)
李俊雨	李俊雨	(은평)
李春澤	李春澤	임업
李平載	李平載	암사
丁奎榮	丁奎榮	(신부)
許完	許完	서대
閔鳳基	閔鳳基	천진

郭少晋	金武煥	金泰天	孟泰均
文道彬	● 북한연구소 위원	● 동창회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梁榮太	● 치과의원 원장	● 서울신문총국장	● 동방보통보수부장
朴東海	● 동창회부회장	● 서울신문총국장	● 경향신문부장
潘永煥	● 서울신문총국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尹王述	● 부산일보 사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李根燮	● 대우주자회사 사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李允順	● 조선일보 경제부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李俊佑	● 조선일보 소년조선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鄭好根	● 전국회의원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趙容直	● 전국회의원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崔浩	● 대현엔터프라이스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彭元順	● 한양대신방파교수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姜敏求	● 우성관(광주)사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姜錫漢	● 재무부 관세국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孔忠鑑	●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具本泰	● 남북대화사무국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權洙	● 교통부 행정관리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基炳	● 롯데관광(부사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達洙	● 한수부 역(부고문)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聖奎	● 체육회국제부부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昇政	● 유흥문화부사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榮東	● 신동아 화재보험사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友璋	● 국민카드부사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允植	● 의정부 전진전학국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寅東	● 서울시 내무국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仁柱	● 지하철공사 고문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鐘球	● 건설공제조합 회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昌洛	● 동방아동복지회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漢坤	● 동부산부암정국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金衡泰	● 지방법정연구원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盧健	● 산림청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文明講	● 전해문화관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文惠甲	● 경제기획처장	● 삼부부회장	● 경향신문부장

冠岳音 利用안내

同窓會館 5층에 마련된 冠岳賓館은 座席 3백석의 완벽한 大會議室입니다. 각종 會議를 비롯한 세미나, 宴會, 同門 및 子女들을 위한 結婚式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最新 冷暖房 시설이 完備된 아름다운 조경과 복원기입니다.

▲全學濟
(51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韓
國科學技術
院院長=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Lee Eun-ryun, a middle-aged man with glasses, wearing a suit and tie.



▲黃仁(58年大卒)會理事長院院長國研發院院長同院院長同院院長同院院長
▲金泰(58年大卒)會理事長院院長國研發院院長同院院長同院院長同院院長
 협력센터 소장이었다.

▲ 李景俊 (58)
大卒·本
理事長
중공업회 회장

게 알리기 위해
場을 옮기셨거나
개인의 활동 및
다 상세하게 알리
있습니다. 사진
주시면 게재토록
용있으시길 바랍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

마련한 것입니다. 職位의 변동을 비롯,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나 함께記事를 보내 하겠습니다. 많은 이 니다. 電話로 통보해 해 배 와 둘 구 총 임 국 가 배 를 권 수 우 총 회 기 5 6 1 61 년 理 大 爭 洪 斗 會 公 社 事 월 사 터 키 제 신 문 이 스 탠 블 에 서 열 린 국 。 미 주 지 사 를 5 월 8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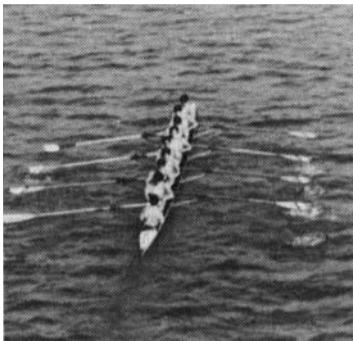
 김창호 61년 대학원 理事·本 大卒 理事·中	▲ 李鍾	 김경환 61년 대학원 理事·本 大卒 理事·中	▲ 姜賢
61년 정부발령에 따라 실장에서 전북도지사로 영 기획원에 5월 19 北道知事 會理事 理事·本 大卒 理事·中	61년 정부발령에 따라 실장에서 전북도지사로 영 기획원에 5월 19 北道知事 會理事 理事·本 大卒 理事·中	61년 정부발령에 따라 실장에서 전북도지사로 영 기획원에 5월 19 北道知事 會理事 理事·本 大卒 理事·中	61년 정부발령에 따라 실장에서 전북도지사로 영 기획원에 5월 19 北道知事 會理事 理事·本 大卒 理事·中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short hair, wearing a dark suit and tie.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left. The photo is framed by a thick black border.

<p>국제이사 를 여덟。</p>		<p>▲ 崔 (62세) 長魯 理商事 常務 社長 事務部 總經理 에 에서 임명 되었 다.</p>
<p>4월 23일 협회 회장에 국제이사 를 여덟。</p>		<p>▲ 金 (62세) 正基 大學生 齒科醫 事務部 總經理 에 에서 임명 되었 다.</p>

월 3일 정부발령으로
정부비서관에서
판보로 영전

齒大九六校友會



◇ 조정은 전조수의 동작이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96정 우회 회원간에는 兄弟愛같은 것이 흐르고 있다.

潛艇훈련으로 친목도모
年 6백만원 奬學金지급



◇ 鄭鍊沁지부장

調劑약국 효시이룬 藥師모임

이시나 광활한 과연 좋사하고 있다.
이가는 늘리는 난세를 살
의자들 흔드는 정인가? 기회주
들도 올바리겠지. 시일복객
맑으면 이런 터에 이런 씹

란 혼자 거슬려 고하게 오르려는 텔루를 것을 벌이자 말



沈 在 龍
〈母校 人文大 迄今〉

과 운 선지자로 하여금 초
계 월직 현설을 고개케 하라. 다만
여울련 가슴을 펴주고
웅어리진 한을 풀어주
는 시인 음악가 예술
가로 하여금 뜻부른
노래를 마무리
하고, 봇다그린 그림을
마을것 그리게하라. 자

유로운 마음에 마땅히
여재되었던 그는 당시
신의 자리를 보고 싶어
이면, 군인의 바탕을
막는 정가는 모든 사람의
수호신이 되고, 정자는
뜻이 활짝 밝힐 수 있는
신명나는 삶의 놀라운
장치를 돌돌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너로서는 자유의 범을
착취의 제도적 미리 살의 놀라운
고인간한 진정한 삶의 놀라운
내려라. 그것이 험난한 놀라운
기운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는 최근
연의 환경들이 겪어
온 난세를 이루 펼쳐
로려다 보니 어려워질 만
수산 드물레이 멀하고
설령으로 살아나보자는
체계의 학술이 험난한
사람들이 저들대로 쳐
들었나보다. 또 그렇다
보니 대로하는 대학생
아들을 두고『기생충
인네』라고『죽자 빨리
거린데』 어느 고위급자

처럼 그에 기생하는
처세술을 난세를 살아
가는 술가로 잘못
거버린 혼인자 요령
회주의자들이 많은 것 것
사실이다. 이제 체제를
넘을 벼리는 술기를 되
찾을 때가 아닌가? 국
민의 의식주를 탓하
여전히 자제에 헐려
들지 않고 놀라하게 인
간단히 술기 기본을
구를 충족시키는 「보
통사람」을 시대까지
않는가? 기생적 처세
술을 난세를 살아가는
습기로 잘못 생각한 거
빼면다」^{大悟覺醒} 하자. 술기의 제공자들을
은 제 분석의 예술에
충실히 하자. 정치꾼들이 사
령발령에 속을 빼성이
이제는 더 이상 빼을
것이다. 영생과 자비로
현생을 도덕하며 바꿈
질하는 종교장사꾼에
영화를 빼야 되기는 무
식한 백색도 이제는 더
없을 것이다. 이 술에
없는 글이 역사의 날도
장으로 그리 떠나지 않는 것이

다소 인식이 되었는 바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으로 올라갔다. 산정에는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나라 특산물인 산나물이 풀이 펼쳐져 가는 진달래 꽃을 이어 범꽃과 실꽃이 학교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놀고 있었던 나루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등성이에 두 그루의 산개나리가 활짝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자리를 위하여 전통으로 산개나리가 색색 나기에 사무실에 들려서 떠치리를 부탁하였다. 풀처럼 펼쳐진 꽃들이 아득한 산정에 있어서 중학교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로 아버지가 학교의 광장으로서 중학교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亂世를 살아가노라면

名譽教授칼럼

冠岳 樹木園의 意味



李昌福

〈47년 農大卒. 前母校교수〉 사단에 있 위원의 위도 있

고 정부를 봄다. 아직
정부교과가 없는 공산
권 국가들도 서둘러 종
자를 요청하여 오고 있
으니 수록 활동한 民
間外交의 기관들 무시
할 수 없다고 봤다.
[국독원] 잘 되어감
[나경] 어그 날 자연보
호 재봉 중 풍리께서
하신 말이다 무척 반

원정
한다.
화성전쟁에서 봄이
자꾸는 올려
하나
이기는 하지만 보다慵
묘한 것은 여기에서 자
라는 식물이 보호하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
진국에서는 사리재 가
는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수
록하여 빛이도

만종
단종
태종
위종이
여기서
처하리라
고 보고
있다. 이것의
하루
2종식의
식률이
생존의
위험을
방지된
다는
계산이
된다.
자연보호·자연보존·
그린벨트의
설치와 관
리 등에
관한 제정기관
의 이론이
알고 있으
자연 속에서
간 간접적
보호와
제공에
수주원의
중요성을
증명하

신이 지나는 땅인 노루
발길을 거듭 하여
금한 수복원 소유수에
있어서 세계의 상위권
에 올라갈 수 있었으
나 내용의 충실했던
어지는 농민이나 애자
를 고지 것과 대체
바가 되지 못한다.
『판하산』 다시 찾을
수 있다』란 내가 演
習林長으로 있을 때 櫟
총장이 한 말이었다.
신령성이 생기게 되어

다 그
죽자 하구를 소
개하며
[이 박사를 믿어도
뭡니까] 라고 말하는申
총장의 열광적인 평화
를 보이지 않았다.
단체를 신의 시 흥고구
가 저마다 총장을 공
직하는 데다 신뢰를 하
단체를 놓고 청탁을 해
있었다. 광활한 이후 세
례를 알고 있던 그에
게는 총장 뜻이 아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었다.

체하게 되었으나 몇년간
간의 예산위의 기관
을 찾고 끝장을 찾았던
이 1967년 7월 8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회 소식이 둘러보았다.
타고 말린 물건에 물려
고 있다 수해피해가
배정되고 시설이 훼
정되고 수목이 훼
운 비로소 퍼포도원

保有樹種 세계서 上位圈돌입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人體는 서서히 물에 의존하여 물에 물에
들어나기 쉽도록 허우리를 놓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벗어나기 어렵도록 놓고 있다.

아직
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1924. 10월
교내구로서 수학부에
설치하기로 한 학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이름마저 올리지도 않
정도로 세계에서 가
장 뛰진 나라는
없었다. 그후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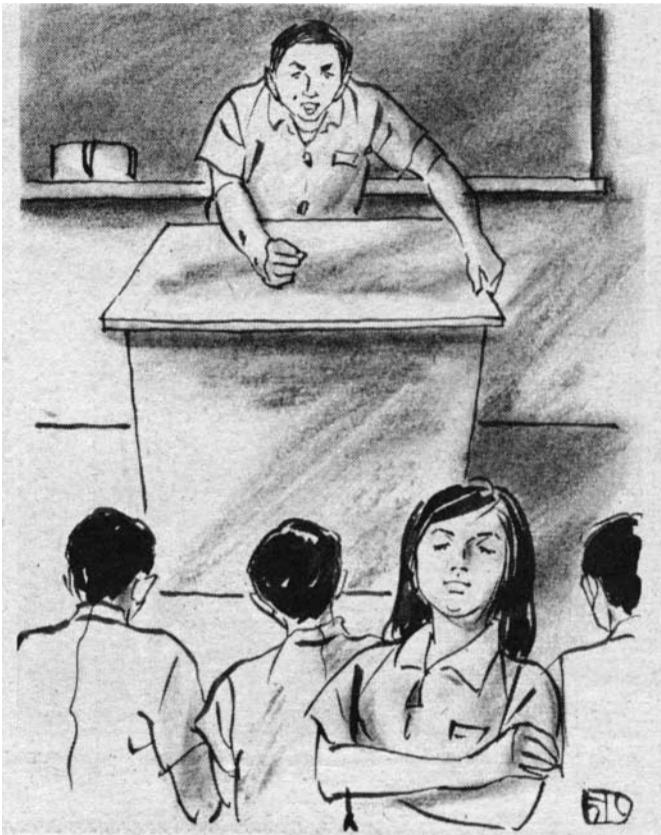
있기에 山林局를 찾아
가서 우여곡절을
시작한 대학교에서 관리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 수 있는
이것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를 고생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상으로 되기까지에는
법정집합을
거쳐서야 만 했

法執者出^{スル}이 論奏^を定^め하니
國府^の主事^が其^の道^を守^るに
眞^實を^も重^んだ^る事^だ
多^く是^れを^も喜^{んで}居^る事^だ
은 서 헌장으로 빠져^나갈수
있었다.
1971년 大統領敘
666호로서 관수의
목록이 서술^{되었고} 목록
마련^{되어} 봐^야 한다^는 데이

同門作家 短篇選

우리교실의 伝說

金國泰 〈63年 師大卒・秋溪藝術學校至今〉



부족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나 개인의 자가 반성을 갑히 얘기하자면 출지하 내가 후보 선수에 머물렀다는 나만 보아도 열성부족이라는 것은 명확할
나다. 나는 선생님의 교탁을 무언가로 광내려고 우리를 주워 훑어 내렸다.
보는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가슴에 헌화하는 미가 자리잡아 있고 있었던 것처럼 사살이었다. 우리를 향해도 대체 왜 간접하기도 좋았던가. 고 전통하면 주눅이 들었지만 절제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서 올해지는 것인이다. **『여진대** 하마다로 말해 서 **여성부**에 인데 **작자** 군 대학전 도대회 나아가서 전국대회까지 재도전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단단히 단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놓기고 넘기고 부자에게 화순을 구부리면서 해야 할 것이다.

구부정이 되었는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것을 차 없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내 그녀의 육조를 하고 있었던 유리를 들 속이었다.

내려갑니다.
간다고
메루기
에선
해놓고는
교단
개와
내려다
채
하는
눈을
파하는
애
리를
하는
눈이
부드쳤을
때
내려가는
애
눈을
잘찌찌
눈으로
주눅들었
았상을
다
드러나였다.
이마
교단을
하고
개가
는
나섰다.
구부장
으로
후
당황
화실한
내려쓰고
개는
작시
를로
지
않고
연제
어떤
서개는
개는
일을
는
잡간
교단
농협
집회로
우리를
집회로
놓

도 아니고, 여튼 우리반 것
같은 염청난 돈을 냈다는 것만
그려면 애기하고 얘기하고
얼마를 냈느냐? 그
전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
하고 전에도 지금 당장 확
힐개는 단지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말을 끌내고는 교
머리를 둘둘 돌리면서 내려왔고
자리로 가서 있었다.
단지로는 않았다.
나와 각자의 일을 짜증을 고
채 가방을 짜증을 고
을 불어대어 짜증을 고
여전히 우리들은 너나없이 차하
게도 아버지 어머니를 불어왔다.
복어대어 짜증을 고
별상에서 내어왔다.

활의
꼴로 가
크지
않았고는
수 없지만
무엇보다
신과 뛰어난
재의 빛나는 현
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三

